



◇내원사 혜동·지율스님, 가톨릭 신부·수녀 등 50여명은 24일 '금정산·천성산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부산시청을 출발해 3시간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3보1배 정진했다. 사진=천미희 기자

금정·천성산 파괴 총력 반대

스님·수녀 등 50명 고속철 저지 3보1배...단식 돌입

부산시민 95% '산 관통 반대'

부산시와 고속철 공단이 금정산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강행인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키려는 불교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 종교대책위원회'와 '금정산·천성산 공동대책위' 주체의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2차 토론회가 22일 열린데 이어 24일에는 내원사 대중스님 50여명이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생명존중

3보1배 정진'을 가졌다. 또한 26일에는 금정산·천성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결의대회를 범어사 경의주차장에서 열고 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과 공동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지율내원사 산갑 정여(여여선원장)·법산(영주암 주지) 등 스님 8명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노선변경을 약속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시정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천성산 내원사 주지 혜동스님, 산갑 지율스님, 윤희동 신부, 성본도

스님, 내원사 선원 대중스님 등 50여명은 24일 천성산 금정산의 못생명을 살리겠다는 서원을 담은 3보1배의 정진으로 총력 반대에 돌입했다. 부산시청 정문 앞을 출발, 시경, 부산시청 후문, 시의회를 거치며 시청앞으로 돌아오기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정진에서 참가 종교인들은 '금정산이, 천성산이 울고 있다'는 대국민성명을 통해 "부산과 양산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수려한 절경을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인 천성산과 금정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는 경부고속철 대구 부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진동의 피해가 축소 보고되었거나 간과되었다는 연구발표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고속터널 주변 고속전철 통과지역의 소음·진동의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김화일 부산가톨릭대 산업환경시스템부 교수는 "고속철이 들어설 경우 소음·진동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소음 진동 저감대책보다는 노선이나 종착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의 95.1%가 금정산,천성산 터널에 반대하고 있으며 터널 대안노선으로는 57.2%가 금정산과 천성산을 통과하지 않고 노포동을 종착역으로 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대학 연구활동 강화

불교대학장협, 회칙제정

조계종 불교대학장협의회(회장 정인, 창원 불지사 주지)는 22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무실을 포교원 및 회장 상주처에 두기로 하는 등 회칙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회칙은 △전통교육기관의 정보화 및 공동사업 추진 △각종 연구회 운영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및 수련회 개최 △교육연구 간행물 및 학술전문지 발간 등을 추진토록 하고, 부설 연구기관과 장학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조계종 비인가 불교교양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대은, 한정실, 김재일)는 1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헌반식을 가졌다.

김재경 기자

불교 경전사이트 '세존' 운영난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관리비등 부채 2억



80회업경·법화경을 비롯 불교관련 텍스트를 서비스하는 '세존'(http://www.sejon.or.kr)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했다.

지난해 5월 '세존'을 개설해 운영해온 성범스님(용화사 주지·사진)은 19일 사이트 메인에 띄운 '불교경전 총론 1년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세존'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링크와 자료 퍼가기가 횡행하는 등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재정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트 유료화보다 불자

들의 보시로 전산화 불사를 이루려던 스님의 기대는 사용자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세존'에 들어가는 월 관리비는 800여만원선이며, 관리비 및 추가 구축비용 등 총 부채만도 2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존'은 개설 두 달 만에 재정난으로 폐쇄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오픈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 6천여 명의 회원들이 공부하는 사이버 강연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10만원 안팎의 후원금으로는 사이트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으며,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성범스님은 지난 3월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성범스님은 "사이트를 개설하며 세웠던 '올바른 불교문화'와 '올바른 수행'을 위한 '불교 전산화 불사'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어렵게 됐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후원 ARS060-700-1088 후원계좌: 국민은행 251-24-0010-104(예금주 손관민) 강지연 기자

올바른 방생문화 만들자

조계종환경위, 지침서 발간

으로 짚은 것은 불루깍, 배스, 이스라엘 잉어, 딱봉어, 나일틸라피아 등 14종. 또한 생태계 먹이사슬을 교란하고 있는 붉은귀거북이나 방생을 위해 키워지고 있는 꽃사슴 경 등도 방생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방생지침서는 생태계에

화장사원 등 새로운 방생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방생 실시 △환경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의 사형제 폐지운동이나 두레생태기행의 생태기행 등도 새로운 방생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유신 기자

부산여고졸업생 불자모임

불교동백회 창립

재경 부산여고 총동창회 불자모임인 '불교동백회'가 창립됐다. 18일 서울 잠실 동창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불교동백회는 7회 졸업생인 회장 조영수 씨를 중심으로 정기법회와 봉사 등 수행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정기법회는 오는 9월 2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갖는다. 이은자 기자

열반종 본산 경북사지 복원키로

내년부터 발굴작업

열반종 본산지로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찰인 전북 완주군 경북사지(전라북도 기념물 108호)가 복원된다.

완주군은 오는 11월 '경북사지 복원을 위한 보덕화상(普德和尚)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발굴 작업을 거쳐 사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술회에는 윤덕향 전북대 박물관장과 서운길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등이 참가한다.

경북사지는 전북 완주군 고덕산에 위치한 절터로, 고구려가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받들자 650년 보덕화상이 백제 땅으로 망명하면서 열반종 사찰인 평양 반룡산 연복사를 이

곳에 옮겨지었다. 1799년 편찬된 <범우고>에 경북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 조선 후기까지 법맥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폐사 연도는 알 수 없다. 여수형 기자

3일부터 세계 연꽃展

세계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연꽃전시회가 8월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서울종합활영소내 운당(雲堂)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0여 종류의 연꽃이 전시되며, 연반(蓮瓣) 연자죽(蓮子粥) 연접(蓮葉酒) 등과 같은 음식을 시식하는 이색체험 시간도 마련된다.(023443-2513 한형우 기자

어린이 축구법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싹불자들의 발끝에 녹아들 불심. 절 마당은 축구장이 되고, 스님은 감독이 된다.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월드컵홍보대회를 구성, 내달 초부터 월드컵 불자 축구스타 사인회 및 경기 대회 등의 이벤트 행사를 본격적으로 벌인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구장 학재단을 설립키로 하는 한편, 지역별 꿈나무 축구교실을 운영해

절마당이 축구장, 스님은 감독 '룸비니 꿈나무 축구교실' 창단

사 가수 김홍국씨. 이들이 새싹불자를 위한 축구교실을 열기로 의기투합 했다. 이를 하여 '룸비니 꿈나무 축구교실'.

25일 서울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축구교실 창단식을 가진 이들은 이날 시일 안에 설립추진위원

전국의 사찰과 포교당이 어린이 축구법회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축구교실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후원자 모집과 ARS를 통한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02722-0108 김철우 기자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

24일 임명장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4일 총무원장실에서 진각스님에게 마곡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그 동안 주지선거 문제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모두 털어버리고 교구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각스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만큼 본사와 불교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진해, 진각 스님을 대전 지방감찰청에 사기, 배임, 뇌물수수 혐의와 고발한 대전 백제불교단체연합회는 "총무원 청사 앞 시위와 단식 농성, 일간지 기자회견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불음주계' 지키는 불자 얼마?"

김성철교수, 재가자들 파계에 일침

'술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불자들이 얼마나 지킵니까.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격월간 '참여불교' 7·8월호에 기고한 '생활윤리로 정착되지 못하는 계율'에서 재가자들의 '파계'에 일침을 가하며, 계행을 생활화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와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결여된 데다, '모든 것은 공하니 선도 악도 없다'는 식의 공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계율을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은 김 교수는 "계율수행 없이 좌선수행만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생활을 하는 재가자들이 불음주계를 지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지킬 자신이 없으면 수계시 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계만 받으면 된다"며 <대지도론>을 인용해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계행생활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찰 수련회 일정을 △번뇌를 가라앉히는 좌선 수행 △윤리와 인과응보에 대한 교육 △수련기간 동안 10선계 수계 △참회기도 △수련회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환계(還戒) 의식 등으로 짜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등은 정부당국과 전 종도들에게 그간의 입장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 등 현재의 환경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지혜로 해결할 것을 각계에 촉구한다.
-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관통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노선을 협의하라!
- 정부는 금정산과 천성산의 생태계와 천년고찰을 훼손하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통과구간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노선을 변경하라!
- 우리는 산과 기암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하여 교구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사업을 막아내고 친환경적인 사찰운영을 시행할 것이다.

불기2546(2002)년 7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직할교구조계사, 제2교구 용주사, 제3교구 신촌사, 제4교구 월정사, 제5교구 법주사, 제6교구 마곡사, 제7교구 수덕사, 제8교구 직지사, 제9교구 동화사, 제10교구 은혜사, 제11교구 불국사, 제12교구 해인사, 제13교구 쌍계사, 제14교구 범어사, 제15교구 통도사, 제16교구 고운사, 제17교구 금강사, 제18교구백양사, 제19교구 화엄사, 제20교구 송광사, 제21교구 대흥사, 제22교구 관음사, 제23교구 선운사, 제24교구 봉선사 주지일등)